

# 1980年 世界 에너지動向

(下)

李 英 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先任研究員〉

### 3. 其他代替에너지

#### 가. 天然가스

天然가스의 전세계 埋藏量(79년1월1일기준)은 石油의 確認埋藏量과 비슷한 45百億배럴(688百億m<sup>3</sup>)이며 지역별로는 蘇聯, 中東, 南北美에 세계매장량의 80%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 国別로는 蘇聯에 전체의 39.9%인 275百億m<sup>3</sup>가 매장되어 있고 이란(15.5%), 美国(8.3%), 알제리(4.3%) 등이 주요 부존국이다.

주요생산국으로는 美国, 蘇聯,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며 이중 美国과 蘇聯의 80년 생산량은 각각 53,003百萬 cfd(cubic feet per day), 41,736cfd로 세계생산량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表1참조〉

天然가스의 消費는 輸送上의 문제점때문에 生産国 또는 隣接国에서 주로 행해지며 그밖에 遠距離輸入国들은 自国資本을 투입, 液化天然가스를 제조하여 탱커로 輸入하고 있다. 따라서 天然가스의 소비는 供給側與件에 크게 좌우된다. 80년의 주요국 天然가스消費는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減少하였다. 그 이유로는 石油價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天然가스의 價格이 石油價引上和 더불어 引上되었고 경기침체로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외에도 가스輸出国的 供給減少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美国의 경우 天然가스소비가 감소한 것은 自国の 生産減少, 캐나다 송유관을 통한 輸入減少 및 알제리와의 價格協商決裂로 인한 輸入減少가 크게 작용

〈表 1〉 各國의 天然가스 生産量

單位：百萬feet<sup>3</sup>/day(cfd)

区 分	78	79	80	79年對比 80年增減率(%)
美 国	54,723	54,030	53,003	△ 1.9
캐 나 다	9,653	10,225	9,212	△ 9.9
英 国	3,694	7,749	3,464	△ 7.6
네덜란드	8,596	9,348	8,404	△10.1
西 独	1,960	2,002	1,789	△10.6
노르웨이	1,438	2,084	2,508	20.3
소 련	35,300	38,700	41,736	7.8
인도네시아	1,186	1,442	2,027	40.6

資料：Oil & Energy Trends. March. 20. 81.  
DOE, Monthly Energy Review. AP-DJ.

〈表 2〉 主要国 天然가스消費

單位：石油換算 百万톤

区 分	78	79	80	79年對比 80年增減率(%)
美 国	504.2	498.8	493.3	△ 1.1
캐 나 다	47.3	49.2	48.0	△ 2.4
日 本	17.0	22.1	23.0	4.3
E C	165.5	176.7	174.2	△ 1.4

資料：BP Statistical Review 1979.

DOE, Monthly Energy Review.  
캐나다 統計月報, 日本 統計月報  
Financial Times, European Energy Report.

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EC도 네덜란드 및 알제리에서의 공급감소와 에너지 소비에서 산업용연료와發電부문에서의 천연가스使用抑制政策이 소비감소의 주요인이었다. 반면 日本은 인도네시아産 천연가스의 獨點輸入契約締結로 공급이 증가하였고 에너지 공급원다변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천연가스의 소비를 권장함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나. 原子力

70년대는 先進 工業國들의 강력한 原子力의 石油代替化計劃에 따라 우리들의 探查와 공급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原子力發電의廢棄物處理 과정에서 발생하는 放射線漏出이나 폐기물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 및 美国 드리마일 섬의 原子力發電所 漏出事故 등 때문에 소비국 국민들의 반대가 심화되어 原子力發電所建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석유과동의 영향으로 세계각국은 石油를 代替할 수 있는 방법으로 原子力發電을 고려하게 되었다.

80년중 세계주요국의 核發電量을 보면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美国과 英國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프랑스와 日本의 경우는 49.5%와 33.6%가 각각 증가하였다.

國別 核發電量을 보면 美国은 78년 이후 政府 支援

의 減少, 드리마일 사고 등으로 原子力發電에 대한 國民輿論의 惡化 및 카터 行政政府의 核燃料再處理 반대와 같은 反核政策 등으로 계속 침체되어 79년에는 7.5% 그리고, 80년에는 2.5%가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80년 3/4分期 原子力消費量이 總 1次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한 비중은 4.1%로써 79년 같은 期間의 비중, 3.9%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現 레이건 行政政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政府의 支援削減政策에도 불구하고 原子力發電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하에 종래에 環境保護論者들의 반대로 취소되었던 여러 原子力發電所建設이 새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核燃料의 再處理도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80년11월말 현재 174基의 原子爐가 建設完了 또는 稼動中이나 앞으로는 그 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核發電을 추진하여 80년중에는 每 2개월마다 1基의 原子爐가 새로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原子力發電能力도 79년의 770萬KW에서 80년에는 1,400萬KW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原子爐의 증가로 80년에는 원자력발전량도 79년의 39,929GWH보다 약 50%가 증가하여 59,694 GWH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 社會黨政府의 核發電計劃 全面修正으로 크게 萎縮될 전망이다.

80년중 세계에서 核發電增加量이 가장 컸던 나라는 日本이다. 日本은 에너지賦存資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70년초부터 核發電所建設에 박차를 가하여 80년11월말 현재 核發電能力이 美国 다음으로 크다. 日本은 현재 25基, 1,500萬KW의 핵발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通産省은 85년에는 그 능력이 2,500萬KW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도 국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80년중 日本의 核發電能力은 82,836 GWH로 79년에 비해 33.6%가 증가하였다. 이는 79년의 前年對比增加率 16.5%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西獨은 79년의 17.5% 증가에서 80년에는 0.8% 증가에 그쳤다. 이는 국민들의 反核輿論이 沸騰하였고 聯邦政府와 地方政府의 核發電에 대한 의견대립 및 核燃料確保問題 등으로 核發電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슈미트 首相은 지난 총선거에서 西獨정부는 石炭資源의 우선적 開

<表 3> 各國의 核發電量

單位 = 百萬kw/hour

區 分	78	79	80	79年對比 80年增加率 (%)
美 國	292,664	270,698	263,931	△ 2.5
캐 나 다	32,925	38,383	40,955	6.7
프 랑 스	30,548	39,929	59,694	49.5
스 웨 덴	23,781	21,039	24,510	16.5
스 위 스	8,349	11,848	14,644	23.6
英 國	36,662	38,477	36,938	△ 4.0
西 獨	35,881	42,175	42,512	0.8
日 本	53,186	62,003	82,836	33.6
벨 기 에	12,490	11,370	12,666	11.4
自由世界總實績	556,294	570,827	612,497	7.3
소 련	46,800	53,200	na	

資料 : BP Statistical Review

1979.

발전 제한된 핵발전계획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英國도 79년에 82년~92년까지 10년간 1,500萬KW의 핵발전施設追加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핵발전電量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와같이 현재 세계각국은 原子力의 이용을 계속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原油價의 급등으로 原子力發電의 發電單價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꿈의 연료인 高速增殖爐가 개발, 상업화되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Ⅲ. 에너지政策動向

80년의 세계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소

비절약과 소비효율개선, 再生不可能에너지源의 代替에너지化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石油價格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의 전반적 상승으로 세계각국은 각종 立法措置를 통해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화하게 되었고, 資源民族主義와 中東의 情勢不安 등으로 수급의 불안정요인이 가장 많은 石油·天然가스로 부터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된 石炭·原子力으로의 에너지代替化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각국은 石油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에너지輸入先을 多邊化하고 대내적으로는 에너지源의 多樣化와 備蓄에 대해 財政·금융상의 각종지원을 확대하였다.

각국정부, 특히 IEA회원국들의 80년중 에너지政策動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産業部門에 대한 에너지節約 施策의 施行

區 分	財政/金融支援			報告/監査			弘報·指導			其他的 施策	
	贈與	融資	租稅 誘因	目標 設定	報告	監査	弘報	會 議  세미나	中小企業에 對한 指導	中央集中 煖 房	廢 品 廢 熱
오스트레일리아	-	-	x	-	-	x	x	x	x	x	x
오스트리아	x	x	x	-	x	x	x	x	x	x	x
벨기에	-	-	-	-	-	-	x	-	x	-	-
캐나다	x	-	x	x	x	x	x	x	x	x	x
덴마크	x	x	-	-	-	-	x	x	x	x	x
서독	x	x	x	x	-	-	x	x	x	x	x
그리스	P	x	-	x	x	x	x	x	x	P	P
에이레	x	P	-	P	P	-	x	x	x	x	x
이탈리아	P	P	-	-	x	-	x	x	x	xP	xP
일본	x	x	x	x	x	x	x	x	x	-	x
룩셈부르크	-	-	-	-	-	-	x	-	-	-	-
네덜란드	x	-	x	-	-	x	x	x	x	x	x
뉴질랜드	x	x	x	P	-	x	x	x	x	x	x
노르웨이	x	x	x	-	x	-	x	-	P	x	x
포르투갈	x	-	-	-	-	x	x	-	x	P	-
스페인	x	x	x	x	x	x	x	x	x	x	P
스웨덴	x	x	-	-	-	x	x	x	x	-	x
스위스	-	-	x	-	x	-	x	-	x	-	x
터키	-	-	-	-	-	-	x	-	P	P	P
영국	x	-	x	x	-	x	x	x	x	x	x
미국	x	x	x	x	x	x	x	x	x	x	x

x : 施行中 P : 計劃中 - : 없음

資料 : OECD, Energy Conservation 1981. Paris.

### 1. 에너지節約 및 燃料代替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는 동안 세계각국은 石油價格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消費節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世界에너지消費國機構인 IEA에서 채택하고 있는 에너지消費節約政策은 매우 포괄적이며 長期的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産業分野와 家庭·商業部門 및 輸送部門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需要部門別 에너지節約政策의 추진상황을 보면 <表4>, <表5> 및 <表6>과 같다.

産業부문에서의 에너지節約시책으로는 첫째 에너지節約技術에 대한 투자촉진과 특히 새로운 절약설비의 상품화, 시장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財政·金融上的 인센티브 정책이다. 이 정책에서는 投資資本의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우

선적지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IEA 회원국 대부분이며, 벨기에, 룩셈부르크, 터키, 이탈리아는 현재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중 이탈리아만이 이 정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節約目標設定과 관련된 報告와 監査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실시이다. 이 제도로부터 얻은 자료는 各産業部門을 지도하거나 정부의 에너지 關聯政策樹立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美國과 스웨덴에서는 에너지 消費量的義務의 報告와 監査를 실시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셋째, 指導啓蒙을 포함한 弘報活動, 특히 中小企業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이다. 이러한 활동은 産業체들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추진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에너지消費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家庭·商業부문에 대한 에너지정책은, 使用特性上 여러가지가

<表5> 家庭·商業 부문에 대한 에너지節約 施策의 施行

区 分	財政/金融支援		建 築 法				共同 計量 禁止	에너지 効率性 表 示		弘報 서비스	
	課稅所 得控除	補助金 支 給	贈與	新 築 建 物		既 存 建 物		強制的	自發的		
				強制的	自發的	強制的					自發的
오스트레일리아	-	-	-	-	-	-	-	-	P	x	
오스트리아	x	x	-	P	x	-	-	-	P	x	
벨기에	-	x	-	P	-	P	-	-	P	-	
캐나다	-	x	x	x	-	x	-	x	x	-	
덴마크	x	x	-	x	-	x	-	-	P	-	
서독	x	x	x	x	-	x	-	P	P	x	
그리스	x	-	P	x	-	P	-	-	P	-	
에이레	x	x	-	x	-	-	x	-	P	-	
이탈리아	-	-	-	x	-	x	-	x	x	x	
일본	P	P	x	x	-	x	-	x	x	-	
룩셈부르크	-	x	-	x	-	P	-	-	P	-	
네덜란드	-	x	-	x	-	x	-	-	P	-	
뉴질랜드	x	x	x	x	-	x	-	-	P	-	
노르웨이	-	-	x	x	-	x	-	-	P	-	
포르투갈	-	-	x	P	-	P	-	-	-	-	
스페인	x	x	x	x	-	x	-	x	P	-	
스웨덴	-	x	x	x	-	x	-	P	x	-	
스위스	x	-	x	x	-	x	-	-	-	-	
터키	P	P	-	P	-	P	-	-	P	-	
영국	x	x	-	x	-	-	-	x	P	-	
미국	x	x	x	P	-	-	-	P	x	-	

x: 施設中, P: 計圖中, -: 없음. 資料: OECD, Energy Conservation, 1981. Paris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중 중요한 정책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室内温度的 上下限線基準設定,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에 냉난방과 온수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個別計量 및 個別料金計算, 그리고 모든 에너지 使用機器의 에너지효율성 표시의무화 등에 관한 立法措置와 재정·금융상의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홍보활동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난방용에서의 에너지소비감소량은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40% 신축건물에서는 50%이상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IEA국가들이 輸送부문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절약조치로는 自動車의 效率性提高 및 연료절약형자동차의 개발, 에너지효율제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税金의 활용과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와

輕油의 相對價格體系確立, 대중교통등을 통한 道路率提高, 그리고 속도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IEA국가들 대부분은 經濟速度를 정하여 놓고 있으며, 차량의 燃料節減을 유인하기 위해 自動車의 重量이나 엔진의 크기에 따라 税金을 差等賦課하고 있다.

또한 이 부문에서는 石油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自動車用 휘발유의 非石油 代替燃料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LPG로의 代替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79년에 휘발유의 혼합용으로 바이오매스에서 얻은 2,000톤의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自動車用燃料의 國產代替燃料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현재 5,000台的 自動車를 壓縮天然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車로 轉換시켰고, 2,000台를 LPG車로 바꾸었으며, 메탄올을 자동차휘발유에 15%씩 혼합하여

(表 6) 輸送部門의 에너지節約 施策 施行

区 分	車重量別 差等稅	엔진規模 別差等稅	速度制限(km/h) 高速道路/一般路	택 시 合 乘	大衆文通 支 援	弘 報
오스트레일리아	x	x	100	-	x	x
오스트리아	-	x	130/100	-	x	x
벨기에	-	x	120/90	P	x	x
캐나다	x	-	100/90	x	x	x
덴마크	x	-	100/80	-	x	x
서독	-	x	(130)*/100	x	x	x
그리스	-	x	100	-	x	x
에이레	-	x	88	x	x	x
이탈리아	-	x	90-140/110-80	-	x	x
일본	x	x	80-100	x	x	x
룩셈부르크	-	x	120/90	-	x	x
네덜란드	x	-	100/80	P	x	x
뉴질랜드	-	x	80	x	x	x
노르웨이	x	-	90/80	-	x	x
포르투갈	x	x	120/90	-	x	x
스페인	-	x	100/90/80	-	x	x
스웨덴	x	-	90-110/70	x	x	x
스위스	x	x	130/100	-	x	x
터키	x	x	90/80/70	x	x	-
영국	x	-	113/97	x	x	x
미국	-	-	88	x	x	x

x: 施行中 P: 計劃中 - : 없음

資料: OECD, Energy Conservation, 1981. Paris

사용하고 있다. 美国에서도 80년의 에너지 確保法 (Energy Security Act of 1980)에 의해 가솔린의 사용을 奨勵하기 위해 휘발유·알콜혼합유사용에 대하여 현행 4 센트의 聯邦揮發油消費稅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송부문에서의 연료전환 노력도 금세기말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이와 같은 각 에너지수요부문에서의 절약노력의 강화로 주요국의 GNP 單位生産당 에너지投入比率는 7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表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美国을 비롯한 주요 5개국의 에너지-GNP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日本의 경우 74년의 100에서 80년에는 79.8로 20이상이 감소하였다. 다른 나라들도 10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에너지 安定確保

에너지確保政策은 73년 제 1차 석유파동이후 세계의 石油輸入國들이 채택한 에너지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78년까지는 주로 石油確保에 정책의 초점이 주어 졌으나 제 2차 석유파동부터는 에너지源의 多樣化와 備蓄에 중점을 두어 왔다.

日本의 경우 日本정부는 79년 7월 새로운 經濟社会 7 個年計劃을 발표하였는데, 이 計劃中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에너지의 安定供給確保라는 기본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源의 轉換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고 輸入石油의 安定確保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와같이 세계각국은 80년에도 日本과 비슷한 확보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石油消費

<表 7> 主要國의 單位 GNP 生産을 위한 에너지投入指數 推移

區 分	年 度 單 位	74	75	76	77	78	79	80
		美 國	不變GNP (A) 10억 \$	1,549	1,549.2	1,632.7	1,723.2	1,804.1
	에너지사용 (B) 10 <sup>15</sup> BTU	72,759	70,707	74,509	76,390	78,154	79,060	76,140
	B / A	46.43	45.64	45.63	44.36	43.32	42.46	41.22
	指數 (74=100)	100	98.3	98.3	95.5	93.3	91.4	88.8
日 本	不變GNP (A) 10억 ¥	146,678	148,798	158,434	167,057	177,018	187,465	195,338
	에너지사용 (B) 석유환산백만톤	339.0	339.9	354.2	355.8	363.6	380.7	375.0
	B / A ×10 <sup>3</sup>	2,407	2,284	2,236	2,130	2,054	2,031	1,920
	指數 (74=100)	100	94.9	92.9	88.5	85.3	84.4	79.8
英 國	不變GNP (A) 10억 파운드	105.16	104.41	108.79	109.86	113.84	114.91	111.46
	에너지사용 (B) 석유환산백만톤	214.5	204.3	207.4	211.9	211.4	220.8	203.1
	B / A	2,040	1,957	1,906	1,929	1,857	1,921	1,822
	指數 (74=100)	100	95.9	93.4	94.6	91.0	94.2	89.3
西 獨 逸	不變GNP (A) 10억 DM	1,053.3	1,034.9	1,089.5	1,120.5	1,161.3	1,214.0	1,235.5
	에너지사용 (B) 석유환산백만톤	260.2	243.1	263.7	262.6	272.7	285.1	273.7
	B / A ×10	2,470	2,349	2,420	2,344	2,348	2,348	2,215
	指數 (74=100)	100	95.1	98.0	94.9	95.1	95.1	89.7
프 랑 스	不變GNP (A) 10억 프랑	1,449.7	1,452.3	1,527.5	1,570.4	1,626.7	1,678.3	1,695.1
	에너지사용 (B) 석유환산백만톤	184.1	171.1	183.2	186.6	191.8	195.4	192.0
	B / A ×10	1,270	1,178	1,199	1,188	1,179	1,164	1,133
	指數 (74=100)	100	92.8	94.4	93.5	92.8	91.7	89.2

資料 : IFS, OECD Economic Outlook, BP Statistical Review.  
DOE, Monthly Energy Review, Oil & Energy Trends.

국들은 메이저의 역할 축소로 原油供給 루트를 메이저에서 国内綜合商社를 통한 D-D나 政府間去來인 G-G로 전환하였다. 또한 供給先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非中東, 非OPEC原油의 輸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에너지 輸入國들은 에너지輸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너지자원의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国内賦存量이 없거나 부족한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資源保有國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合作投資 및 現地開發投資 등에 政府出資, 融資등의 政策的 支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政策이외에도 각소비국들은 위급시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石油備蓄과 에너지 消費國間的 協調體制를 강화하였다.

80년 10월 현재의 세계주요국의 石油備蓄量은(表 8)에서와 같이 대부분이 90日分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는 130日分以上에 달하고 있으며, 비교적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캐나다, 美國등은 그 비축량이 低位에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정책은 주로 에너지의 上流部門(Up stream)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외에 下流部門(Down Stream)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었다. 각소비국들은 위급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石油關係法을 정비, 石油流通情報體系와 石油配給體系의 확립을 추진하여 行政的 対応能力強化에 중점을

〈表 8〉 各國의 備蓄現況

(單位. 百萬 배럴, 日)

區 分	備 蓄 量	日 數
美 國	1,342	78
캐 나 다	143	81
英 國	159	104
브 라 질	100	90
西 獨	293	131
이탈리아	181	138
스 케 인	144	130
싱 가 포 르	15	90
泰 國	18	90
濠 洲	47	67
日 本	450	110

80년 10월현재 비축량임.

資料：日本 月間海外市場動向 1981. 2月号.

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년의 에너지 정책에서 나타난 특징은 에너지 消費節約과 燃料代替 및 에너지의 安定確保에 대한 政府役割의 증대이다.

80년 이전까지는 에너지의 需給과 가격 결정에 대해 政府, 즉 公權力의 관여가 억제되고 있었으나, 에너지는 功勞財(merit goods)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政府의 개입이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될 전망이다. \*

창조하자 民族文化  
이룩하자 正義社会